❖ 코로나 전·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용실태 변화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인프라지원팀 김미희, 김재현

Contents

- I. 서론
- II.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입국 정책
- III.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요
- IV. 코로나19 전·후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용실태 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 ① 정부는 2015년 8월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활성화 및 미용성형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¹⁾
- ② 이 제도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해외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받음(『2019 조세특례 기반기 입의심층평가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재정연구원』)
- ③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도 크게 위축됨
- ④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2021년도 환급실적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용실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II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입국 정책

- ① ('20.02) 감염지역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효력 정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을 통한 탑승 전 입국제한, 중국 주재 공관 신규 사증 발급심사 강화,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
- ② ('20.03-04) 단기사증 효력 정지 및 신규 사증발급 심사 강화,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실시 및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명령
- ③ ('20.07)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 신설
 - 치료 목적으로 사전에 의료기관과 진료 예약이 확정된 “중증 외국인환자”에 한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음성일 경우 예약된 의료기관으로 이송 및 격리·치료 실시
- ④ ('21.02) 해외입국자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⑤ ('21.07)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 ⑥ ('21.11) 워드코로나 전환 및 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
- ⑦ ('22.06)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 제도 종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III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요

■ 환급대상자

-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관광객²⁾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시, 환자의 여권 정보 및 항공권(3개월 이내 출국 여부) 확인(표 1)

〈표 1〉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

〈환급 가능 외국인 관광객〉	〈환급 불가 외국인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영업활동 종사 중인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재 외교관, 외국 공관원, 국제연합군, 미군 장병 및 군무원 ■ 대한민국 국민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 중인 자 - 비거주였던 자로 입국 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외국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중인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자* <p>*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여 외국인 등록한 경우 → 유치 불가, 환급 가능</p>

■ 환급대상 의료용역의 정의

-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의 미용성형·피부과 시술*로 정의함³⁾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중앙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향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특례적용 의료기관 및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

- (특례적용의료기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시행일: '16.6.2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 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됨⁴⁾
 - * 등록 취소 시점 이후에 공급된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환급을 실시하지 않음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청에서 지정한 사업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고시 제3조
 4)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시 제2조 제4항>제2조(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 환급절차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중략)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①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IV 코로나19 전·후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용실태 분석

■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실적

- 코로나 전(2019년) · 후(2020년~2021년)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환자가 급감한 만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실적 역시 감소됨
 -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의 환급건수는 각각 91%, 97.8% 감소하였으며, 환급액은 각각 80.3%와 95.9% 감소되어 '21년에 더 많이 줄어듬(표 2)

〈표 2〉 2019~2021년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실적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12개월)	2020년 (12개월)	2021년 (12개월)
환급건수(건)	141,776	26,899	3,015
사업자 수수료(A)	3,522,237,718	681,958,504	124,201,507
환급액(B)(원)	19,238,638,500	3,796,333,500	801,008,500
총 부가세액(A+B)(원)	22,760,876,218	4,478,292,004	925,210,007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건수 비교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실환자)은 2019년 유치실적(49만 7,464명) 대비 76.5%가 감소되어 117,069명에 불과하였음. 2021년에는 2020년보다 24.6%가 증가된 145,842명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임(표 3)⁵⁾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 그러나 미용성형 환급건수의 경우, 2020년에 약 11만 건이 줄어 2019년 대비 81% 감소되었고, 2021년에 회복세를 보인 전체 외국인환자 수와는 달리, 약 2만 건이 더 줄어들어 2019년 대비 97.9%가 감소된 3,015건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볼 수 있음(그림 1)

〈표 3〉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환급건수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증감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364,189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76.5%	△70.7%
미용성형 환급건수	40,777*	56,094	84,730	141,776	26,899	3,015	△81.0%	△97.9%

*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16.4.1)

[그림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환급건수 비교

- 이와 같이 환급건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입국제한, 격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환자가 줄었으며, 특히 미용성형 의료용역 이용자가 급감한 결과임
- (표 4)에서와 같이 코로나 전·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 모든 진료과의 유치실적이 감소함. 다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대부분의 진료과별에서 유치실적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음
 - (그림 2)와 같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감소한 진료과는 피부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피부과와 마찬가지로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관계가 깊은 성형외과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2020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음(2020년 대비 0.6% 상승)

〈표 4〉 연도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유치실적	유치실적	'19년 동기 대비 증감률(%)	유치실적	'19년 동기 대비 증감률(%)
내과통합	113,442	29,094	-74.4%	47,930	-57.7%
검진센터	54,185	4,848	-91.1%	18,369	-66.1%
성형외과	90,494	16,585	-81.7%	16,678	-81.6%
피부과	85,194	15,409	-81.9%	11,979	-85.9%
정형외과	26,068	7,582	-70.9%	8,994	-65.5%
산부인과	41,007	8,509	-79.2%	8,964	-78.1%
일반외과	15,087	5,241	-65.3%	7,301	-51.6%
안과	13,149	4,312	-67.2%	6,692	-49.1%
치과	15,398	3,976	-74.2%	5,749	-62.7%
신경외과	15,476	3,695	-76.1%	4,590	-70.3%
소아청소년과	12,507	3,490	-72.1%	4,211	-66.3%
비뇨기과	10,556	3,062	-71.0%	4,143	-60.8%
이비인후과	12,555	3,227	-74.3%	3,918	-68.8%
그 외 진료과	85,748	25,632	-70.1%	31,963	-62.7%
합계	590,866	134,662	-77.2%	181,481	-69.3%

[그림 2] 2020년대비 2021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변화율

■ 월별 환급건수 변화

- 월별 환급건수를 살펴보면(표 5),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인 '20년 1월과 2월까지의 '19년 1월과 2월보다 많은 환급건수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입국 제한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한 '20년 3월에는 999건으로 전월인 2월 10,268건에 비해 90.3%, 전년도 '19년 3월 10,047건에 비해서는 90.1%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음. 이후 '21년 12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코로나19 이전인 '19년에 비해 월별로 약 97%~98%의 감소된 환급건수로 나타남
- 다만, 2020년과 2021년 분기별 환급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환급건수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21년 4/4분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환급건수를 보였음(그림 3)

(표 5) 2019-2021 월별 환급건수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환급건수	환급건수	'19년 동기 대비 증감률(%)	환급건수	'19년 동기 대비 증감률(%)
1월	8,887	13,794	55.2	152	-98.3
2월	7,218	10,268	42.3	110	-98.5
3월	10,047	999	-90.1	118	-98.8
4월	11,259	132	-98.8	141	-98.7
5월	12,079	156	-98.7	215	-98.2
6월	12,055	184	-98.5	277	-97.7
7월	12,202	247	-98.0	416	-96.6
8월	12,002	241	-98.0	291	-97.6
9월	13,009	279	-97.9	274	-97.9
10월	14,989	270	-98.2	297	-98.0
11월	15,759	199	-98.7	423	-97.3
12월	12,270	130	-98.9	301	-97.5
평균 증감률	-	-	-97.6*		-97.9
총 건수	141,776	26,899	-	3,015	-

* 2020년 3월부터~12월까지의 '19년 동기 대비 평균 증감률

[그림 3] 2020~2021년 분기별 환급건수

* 2020년 1분기는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이전인 1월, 2월의 환급건수가 포함됨

■ 국가별 환급건수 변화

- 환급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국가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이며, 코로나19 전·후인 '19년~'21년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년의 상위 국가 순위의 변화는 없었으나, 2년째인 '21년에는 19년과 '20년 1위 국가였던 일본이 '19년 63,678건에서 '20년 14,834건, '21년 131건으로 급감하면서 99.8%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며 4위를 차지함.
반면에 '20년까지 1,2,3위 국가인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가 약 99% 감소한 것과 달리 4위였던 미국은 약 78% 감소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음(표 6)

〈표 6〉 환급건수 상위 10개국

순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환급건수	국가	환급건수	'19년 대비 증감률 (%)	국가	환급건수	'19년 대비 증감률 (%)
1	일본	63,678	일본	14,834	-76.7	미국	1,185	-77.9
2	중국	47,268	중국	5,834	-87.5	중국	556	-98.8
3	동남아시아	14,640	동남아시아	2,673	-81.7	동남아시아	163	-98.9
4	미국	5,366	미국	1,262	-76.5	일본	131	-99.8
5	캐나다	1,472	캐나다	305	-79.3	캐나다	112	-92.4
6	호주	855	호주	191	-77.7	영국	39	-89.6
7	러시아	833	러시아	150	-82.0	러시아	32	-96.2
8	중동	517	몽골	88	-76.8	중동	21	-95.0
9	카자흐스탄	407	카자흐스탄	80	-80.3	몽골	18	-95.2
10	몽골	379	영국	77	-79.5	프랑스	16	-87.4
						호주	16	-97.8

*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 환급건수에 대한 의료용역별 이용 실태 변화

- 코로나19 전·후 의료용역별 환급제도 이용실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건수에 대한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함
 - 환급건수에 대한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 살펴보면(표 7), 환급건수가 많은 상위 5개의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로서 '19~'21년 코로나19 전·전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음
 - 다만, '19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주름살제거술은 '20년과 '21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어 2위가 되었으며('20년 86.4% ↓, '21년 98.5% ↓) 2019년 2위였던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 역시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20년 82.0% ↓, '21년 97.5% ↓), 순위에 있어서는 '20년과 '21년 모두 1위를 차지함

〈표 7〉 코로나 19 전·후 환급건수에 대한 의료용역별 이용현황

순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의료용역	건수 (건)	의료용역	건수 (건)	'19년대비 증감률 (%)	의료용역	건수 (건)	'19년대비 증감률 (%)
1	주름살제거술	26,370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3622	-82.0%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499	-97.5%
2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0,163	주름살제거술	3582	-86.4%	주름살제거술	384	-98.5%
3	쌍꺼풀수술	11,826	쌍꺼풀수술	1519	-87.2%	쌍꺼풀수술	353	-97.0%
4	코성형수술	6,159	지방흡인술	1196	-74.6%	코성형수술	196	-96.8%
5	지방흡인술	4,716	코성형수술	1181	-80.8%	지방흡인술	179	-96.2%
6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등	3,865	안면윤곽술	811	-73.3%	안면윤곽술	139	-95.4%
7	유방수술	3,781	유방수술	779	-79.4%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98	-91.2%
8	안면윤곽술	3,037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등	664	-82.8%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등	73	-98.1%
9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1,118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207	-81.5%	유방수술	64	-98.3%
10	지방용해술	899	여드름 치료술	94	-88.1%	지방용해술	26	-97.1%
11	여드름 치료술	792	지방용해술	91	-89.9%	악안면교정술	20	-90.7%
12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413	악안면교정술	79	-63.1%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19	-95.4%
13	치아성형술	302	치아성형술	67	-77.8%	여드름 치료술	14	-98.2%
14	악안면교정술	214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40	-90.3%	치아성형술	8	-97.4%
15	제모술	117	제모술	12	-89.7%	제모술	5	-95.7%
16	기타	64,839	기타	14,237	-78.0%	기타	1,429	-97.8%
	총계	48,611		28,182	-81.0%		3,506	-97.6%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9년~'21년 의료용역별 공급가액과 1건당 공급가액 현황을 살펴보면(표 8), 공급가액의 경우는 환급건수에 비례하여 안면윤곽술, 주름살제거술, 코성형수술,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고(그림 4), 반면 1건당 공급가액의 경우는 건당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악안면교정술, 안면윤곽술, 유방수술, 치아성형술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이전과 이후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음

〈표 8〉 환급건수에 대한 의료용역별 이용현황

구분	의료용역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건)	공급 가액 (백만원)	1건당 공급 가액 (천원)	건수 (건)	공급 가액 (백만원)	1건당 공급 가액 (천원)	건수 (건)	공급 가액 (백만원)	1건당 공급 가액 (천원)
1	쌍꺼풀수술	11,826	20,414	1,726	1,519	3,367	2,216	353	774	2,193
2	코성형수술	6,159	22,357	3,630	1,181	4,519	3,826	196	866	4,418
3	유방수술	3,781	13,798	3,649	779	2,669	3,426	64	528	8,245
4	지방흡인술	4,716	19,215	4,074	1,196	4,293	3,589	179	796	4,448
5	주름살제거술	26,370	28,870	1,095	3,582	4,755	1,328	384	1,090	2,838
6	안면윤곽술	3,037	26,891	8,854	811	6,549	8,075	139	1,205	8,670
7	치아성형술	302	421	1,395	67	80	1,201	8	58	7,287
8	악안면교정술	214	2,521	11,779	79	999	12,642	20	260	12,984
9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등	3,865	2,426	628	664	380	573	73	45	623
10	여드름 치료술	792	544	686	94	62	664	14	5	362
11	제모술	117	78	665	12	3	256	5	1	163
12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1,118	6,177	5,525	207	1,026	4,958	98	591	6,031
13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413	252	611	40	20	500	19	24	1,253
14	지방용해술	899	1,604	1,784	91	232	2,555	26	38	1,475
15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0,163	25,269	1,253	3,622	4,072	1,124	499	862	1,728
16	기타	64,839	76,397	1,178	14,238	15,625	1,097	1,429	2,891	2,023
총계*		148,611	247,233	48,534	28,182	48,652	48,032	3,506	10,035	64,740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4] 의료용역별 공급가액 비중(%) 추이 (2019~2021년)*

* 2021년 공급가액 기준 상위 9개 의료용역

■ 환급건수 상위 5개국 의료용역 이용현황

- 환급건수 상위 5개국(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캐나다)의 의료용역별 환급건수 및 공급가액,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로 상위 5개국의 환급건수는 전체 환급건수의 '19년 93.4%, '20년 92.6%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만 '21년에는 71.1%로 상위 5개국의 환급건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개국이 환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5).
 - 연도별 추이를 보면, 특히, '19년 44.9%, '20년 55.1%을 차지하였던 일본의 의료용역별 환급건수가 '21년에는 4.3%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의 경우 환급건수의 비중이 '19년 3.8%, '20년 4.7%에 불과하였으나, '21년에는 39.3%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증가함
 - 공급가액의 경우도 환급건수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남(그림6).

[그림 5] 환급건수 상위 5개국 환급건수 비중(%) 변화(2019년~2021년)

○ 상위 5개국의 공급가액 비중 또한 연도별 공급가액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함(그림 6)

[그림 6] 환급건수 상위 5개국 공급가액 비중(%) 변화(2019년~2021년)

▶ 국가별(상위 5개국) 의료용역 이용현황 분석

■ 일본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21년 의료용역 이용건수는 '19년에 비해 6만건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대비 '21년에 가장 많이 감소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로서 11,325건이 감소하여 '21년 전체 감소량의 17.5%를 차지함
 - 주름살제거술 외에 피부재생술 등(10,508건), 쌍꺼풀수술(6,146건) 순으로 감소됨

〈표 9〉 일본의 코로나19 전·후 의료용역별 이용실태 변화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주름살제거술	11,344	2,135	9,209	19	11,325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0,523	1,938	8,585	15	10,508
쌍꺼풀수술	6,164	633	5,531	18	6,146
코성형수술	2,848	622	2,226	12	2,836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2,803	459	2,344	7	2,796
지방흡인술	2,227	726	1,501	7	2,220
유방수술	2,046	498	1,548	2	2,044
안면윤곽술	1,212	400	812	14	1,198
여드름치료술	236	34	202	2	234
지방용해술	226	31	195	0	226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172	33	139	1	171
치아성형술	168	48	120	0	168
악안면교정술	112	46	66	6	106
제모술	83	4	79	1	82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46	7	39	0	46
기타	24,632	7,517	17,115	59	24,573
총계	64,842	15,131	49,711	163	64,679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국

- 코로나19 전·후 중국의 의료용역 이용건수 변화는 (표 10)과 같음
 - 중국의 '21년 의료용역 이용건수는 48,419건이 감소되어 '19년에 비해 98.8% 감소된 566건임
 - 가장 많이 감소된 의료용역은 7,598건이 감소한 주름살제거술이며, 이는 2번째로 크게 감소된 의료용역인 피부재생술등의 감소량의 1.5배임

〈표 10〉 중국의 코로나19 전·후 의료용역별 이용실태 변화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주름살제거술	7,682	644	7,038	84	7,598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4,983	738	4,245	77	4,906
쌍꺼풀수술	2,654	334	2,320	26	2,628
지방흡인술	1,384	216	1,168	16	1,368
코성형수술	1,339	165	1,174	7	1,332
유방수술	1,217	151	1,066	7	1,210
안면윤곽술	814	182	632	9	805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551	79	472	4	547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517	71	446	3	514
여드름치료술	450	39	411	1	449
지방용해술	340	28	312	2	338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222	18	204	1	221
치아성형술	71	12	59	0	71
악안면교정술	50	10	40	0	50
제모술	14	1	13	0	14
기타	26,697	3,348	23,349	329	26,368
총계	48,985	6,036	42,949	566	48,419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남아시아

- '21년 동남아시아의 의료용역 이용건수는 (표 11)과 같이 '19년보다 16,541건이 감소되어 '19년 대비 98.9% 감소됨
- '21년에 가장 많이 감소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5,326건)이며, 그 뒤를 피부재생술 등과 쌍커풀수술 순으로 크게 감소함
- 제모술의 경우, '20년은 '19년 대비 4건이 증가되었지만, '21년에는 '19년과 동일한 건수를 보임. 이는 환급건수 상위 5개국의 의료용역 이용실태 변화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전 대비 환급건수가 증가됨

〈표 11〉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 전·후 의료용역별 이용실태 변화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주름살제거술	5,349	412	4,937	23	5,326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469	269	1,200	9	1,460
쌍커풀수술	1,259	136	1,123	14	1,245
코성형수술	989	121	868	9	980
안면윤곽술	519	75	444	6	513
지방흡인술	421	57	364	9	412
유방수술	186	34	152	4	182
지방용해술	153	9	144	3	150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71	5	66	3	68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67	13	54	3	64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29	2	27	0	29
치아성형술	22	1	21	2	20
여드름치료술	19	2	17	0	19
악안면교정술	18	7	11	0	18
제모술	1	5	-4	1	0
기타	6,151	1,778	4,373	96	6,055
총계	16,723	2,926	13,797	182	16,541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미국

- (표 12)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미국의 의료용역 이용건수는 '19년 대비 '20년과 '21년이 비슷하게 4,500여건 감소됨
- 이용건수가 크게 감소된 상위 3개의 의료용역 역시 피부재생술 등, 쌍커플수술, 주름살제거술로서 동일하게 나타남. 다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주름살제거술이 가장 많은 감소량을 보인 반면, 미국의 경우 피부재생술 등이 가장 크게 감소됨

〈표 12〉 미국의 코로나19 전·후 의료용역별 이용실태 변화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966	251	715	227	739
쌍커플수술	643	170	473	190	453
주름살제거술	581	136	445	147	434
코성형수술	353	128	225	123	230
지방흡인술	200	78	122	88	112
안면윤곽술	166	83	83	69	97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116	22	94	26	90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120	38	82	45	75
유방수술	87	28	59	28	59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52	5	47	14	38
지방용해술	49	9	40	17	32
여드름치료술	25	14	11	8	17
제모술	8	1	7	2	6
악안면교정술	13	4	9	8	5
치아성형술	8	1	7	4	4
기타	2,644	537	2,107	487	2,157
총계	6,031	1,505	4,526	1,483	4,548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캐나다

- (표 13)에 따르면 캐나다의 코로나19로 인한 환급건수는 '20년에 1,274건, '21년에 1,492건이 감소됨
 - 캐나다의 의료용역 환급건수 변화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피부재생술 등, 쌍커플수술, 주름살제거술 순으로 많이 감소됨

〈표 13〉 캐나다의 코로나19 전·후 의료용역별 이용실태 변화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건수	'19년 대비 감소량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302	59	243	29	273
쌍커플수술	162	25	137	7	155
코성형수술	93	19	74	2	91
색소모반주근깨, 흑색점, 기미 등	96	56	40	9	87
지방흡인술	77	16	61	2	75
주름살제거술	91	18	73	19	72
안면윤곽술	38	6	32	2	36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34	4	30	7	27
유방수술	25	6	19	3	22
지방용해술	16	2	14	1	15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13	1	12	0	13
여드름치료술	11	0	11	0	11
치아성형술	3	0	3	0	3
악안면교정술	2	1	1	1	1
제모술	1	0	1	0	1
기타	646	123	523	36	610
총계	1,610	336	1,274	118	1,492

* 의료용역별 이용현황은 1건의 환급전표 발행번호에 포함된 의료용역별 이용건수의 합으로서, 환급전표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한 환급건수의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급감함에 따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실적도 동시에 크게 감소됨
- 코로나19 전·후의 환급제도 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주요 국가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환급실적(환급건수, 공급가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환급건수는 급감하였으나, '19년~'21년 의료용역 이용률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환급건수 상위5개국의 '19년~'21년 공급가액의 비중과 환급건수의 비중을 비교했을때 환급건수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
 - 일본은 '19년~'21년 모두 공급가액의 비중이 환급건수의 비중보다 낮음
-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의 입출국 규제 강화 및 완화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임. 따라서 위드코로나를 거쳐 엔데믹 이후 의료관광이 다시 활성화 된다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실적도 코로나19이전 실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환자 유치의 회복 및 활성화 등을 위해서 환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측면에서도 악안면교정술, 안면윤곽술 등 건당 공급가액이 높은 의료용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 마케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309, 외국인환자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2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실적통계보고서, 2021

- ◎ 집필자 :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인프라지원팀 김미희, 김재현
- ◎ 문의 : 043-713-8935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간행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및 보건산업통계포털 (<https://www.khiss.go.kr>)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